

- 주요 뉴스: 11월 FOMC, 0.75%p 인상. 최종금리 수준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
 - 미국 10월 ADP 민간고용, 23.9만건 증가로 예상치 상회. 서비스 부문이 호조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협정에 복귀
 - 일본은행 총재, 초저금리 정책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 의장 발언이 매파적이라는 평가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2.5%], 달러화 강세[+0.6%], 금리 상승[+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및 기술주 약세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가계소비재 관련주 약세 등으로 0.3%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영향
유로화가치는 0.6% 하락, 엔화는 0.3%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긴축 기조 유지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ECB의 금리인상 지속 예상 등으로 1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423.0원, +5.6원) 0.4% 상승, 한국 CDS 보합

		11/2일	11/1일	전일대비			11/2일	11/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759.7	3,856.1	-2.50%	국채 금리 10y	미국	4.10%	4.04%	6bp
	유럽	413.39	414.61	-0.29%		독일	2.14%	2.13%	1bp
	중국	3,003.4	2,969.2	1.15%		영국	3.40%	3.47%	-7bp
	일본	27,663	27,679	-0.06%	CDS 5y	한국	69bp	69bp	0bp
	한국	2,336.9	2,335.2	0.07%		중국	114bp	122bp	-8bp
환율	달러지수	112.11	111.48	0.57%	위험 지표	EMBI+	-	444	-
	유로화	0.9818	0.9877	-0.60%		VIX	25.86	25.81	0.19%
	엔화	147.90	148.27	0.25%		WTI유	90.00	88.37	1.84%
	위안화	7.2900	7.2775	-0.17%	원자재	구리	346.9	347.3	-0.12%
	원화	1,417.4	1,417.2	-0.01%		금	1,635.2	1,648.0	-0.7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11월 FOMC, 0.75%p 인상. 최종금리 수준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대응으로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0.75%p 높여 3.75%~4.00%로 결정. 이는 '08년 이후 최고 수준. 향후 금리인상 폭이 축소될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금리가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제시
- 향후 금리인상 속도는 그 동안 시행했던 긴축 조치들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설명. 현재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고 고용과 낮은 실업률도 여전히 견조하다고 진단
- 한편 파월 의장은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금리 수준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발언. 향후(12월도 가능) 금리인상 폭이 줄어 들 수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결정된 것은 없으며,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 중단을 고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부연
-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었지만 전문가들은 12월 금리인상 폭에 대해 의견이 분분. CME FedWatch Tool에 따르면, 12월은 0.50%p 인상 가능성(56.8%)이 높고, 내년 2월과 3월에 각각 0.50%p, 0.25%p 인상 예상. 최종 금리는 내년 3월 5.00%~5.25%가 되고, 금리인하는 내년 11월부터 가능할 전망
-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편. 연준의 정책 선회 기대가 높았으나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며(Eaton Vance의 Aaron Dunn), 파월 의장의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는 이전과 동일(LPL Financial의 Quincy Krosby)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0월 ADP 민간고용, 23.9만건 증가로 예상치 상회. 서비스 부문이 호조

- 10월 민간고용이 23.9만건 늘어 전월(19.2만건) 및 예상치(18.5만건)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 부문별로는 레저와 접객 부문에서 큰 폭 늘었고, 무역 및 운송 등도 증가. 반면 정보, 제조업, 금융서비스 등에서는 감소
- 최근 경제 여건 등을 고려 시 이번 결과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 다만 금리상승의 영향을 받는 제조업 부문에서는 고용이 감소(ADP의 Nela Richardson)

■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 ECB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필요

- 데 코스 총재는 유로존의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이 높지만 ECB는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금리인상의 속도와 폭은 인플레이션 및 경제성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협정에 복귀

- 국방부는 해당 항로의 비무장화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가 안전을 보장했다며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정에 복귀하겠다고 선언. 다만 이번 협정은 11/22일 만료될 예정이며, 유엔과 튀르키예는 협정의 갱신을 위해 노력 중

■ 유로존 10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확정치), 29개월래 최저. 수요 둔화 등이 반영

- 10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확정치)는 46.4를 기록하여 속보치(46.6) 하회. 이는 제조업 경기가 이미 침체 국면에 있음을 의미(S&P 글로벌의 Joe Hayes)

■ Moody's, 독일 등 유럽계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

- 독일,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은행들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추고, 에너지 가격 급등 관련 위험에 노출 수준이 높다고 설명. 또한 향후 영업 환경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중국 인민은행 총재, 합리적 수준의 경제성장과 플러스 금리 유지 가능

- 이강 총재는 경제가 합리적 수준에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춰 통상적 통화정책 및 플러스 금리를 지속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통화정책은 경제에서 강한 부문과 취약한 부문을 모두 고려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부연

■ 일본은행 총재, 초저금리 정책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구로다 총재는 지금 당장 금리인상 혹은 수익률곡선 통제(YCC)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도달하고 임금이 상승한다면 YCC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발언. 취약한 경제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적 정책이 중요하다고 첨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1/3 현지시각 기준)

-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 미국 9월 무역수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통화정책, 고물가와 경기침체 위험으로 난항 예상 - The New York Times

(Fed Faces Tough Decisions as Inflation Lingers and Economic Risks Loom)

- 연준에게는 11월 FOMC보다 향후 금리인상 방향이 중요.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필요 이상의 금리인상을 원하지 않는데, 이는 실업 증가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
- 그러나 선부른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높일 수 있어, 12월 FOMC까지 경제 지표들과 인플레이션을 주시하여 정책방향을 검토할 전망. 소비수요와 임금상승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 12월에 금리인상 수준을 낮출 경우, '23년 통화정책 긴축이 더 심화될 우려(JPMorgan의 Michael Feroli). 잠재성장률 이하로 GDP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인상을 예측(Goldman Sachs의 David Mericle)

■ 미국의 리쇼어링, 향후 물가 추이에 변화를 줄 가능성 - 블룸버그

(US Manufacturers 'Pumped Up' About Supply-Chain Reshoring Trend)

- 지난 수년간 논의되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중단되었던 리쇼어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활발해지는 추이. 여기에 자동화에 따른 인건비 비중 감소 등 여타 요인도 가세하면서 다수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적극 고려
- 이에 금년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 관련 일자리가 공급망 혼란과 미중 갈등 악화 등으로 25% 증가할 전망(Deloitte). 다만 여전히 대다수 주요 품목에서 미국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리쇼어링 가속화에 따른 물가 상승이 고착화될 우려

■ 미국 중간선거, 경제 비관론 확대 등으로 공화당 우위 가능성 점증 - WSJ

(Republican Election Prospects Rise as Inflation Overshadows Abortion, WSJ Poll Finds)

- 11/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조사 결과에서 공화당이 46%, 민주당이 44%의 지지율을 획득. 이는 지난 8월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공화당에 3%p 앞섰던 것과는 대조적
- 유권자들은 정치적 이슈보다 인플레이션, 유가 등 경제문제에 관심이 훨씬 큰 것으로 관측. 경제전망을 묻는 질문에 71%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 핵심 관심 사항인 인플레이션 관리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잘 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48%였으며 민주당은 27%에 불과

■ 미국 중간선거, 기업이익에 부정적 영향 예상 - Financial Times

(Divided government, diminished profits)

-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우위 가능성이 제기.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서로 달라진다는 의미. 이러한 분단(divided) 정부 하에서는 대규모 정부 지출법안 통과는 기대난. 정부의 재정지출이 직·간접적으로 기업이익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 시 분단 정부의 출현은 기업실적 및 투자자에 부정적
- 실제로 '12년 이후 기업이익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정부의 대규모 지출이 이루어진 팬데믹 기간 기업의 연간 세후 영업이익은 큰 폭 증가(이전 대비 약 33%, 1조달러). 분단 정부 출현으로 재정 지출이 축소될 경우 기업이익은 줄어들 소지

■ 저금리 시대의 종말, 소비위축과 기업가치 하락 등을 유도할 전망 - Financial Times

(How will we remember the age of cheap money?)

- '08년 금융위기 이후 화폐 가치가 하락한 반면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으면서 빈부 격차가 확대. 대표적으로 주택 소유자의 경우 낮은 대출금리 등으로 금융부담이 감소한 반면 주택 가치는 상승하면서 경제적 혜택이 증대
- 한편 무이자 할부 형태의 소비 패턴 증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투자 촉진 등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전시키고 스타트업을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에 기여
- 그러나 앞으로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과거의 풍요로운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면서 소비 위축, 일부 기업가치 하락 등의 변화를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

■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 재정적자 축소 노력이 동반될 필요 - WSJ

(To Solve Inflation, First Solve Deficits, This Theory Advises)

■ 유럽의 에너지 위기, 미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 - Financial Times

(The energy crisis gives the US a chance to woo big European companies)

■ 영국 단기채 공급 부족, 영란은행의 금리인상 효과를 제한 - 블룸버그

(How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Isn't Working as Intended)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